

질문으로 하는 성경공부: 베드로전서

1. 베드로전서 1:1-21

1) 관찰질문: 베드로전서는 편지의 수신자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1, 2:11)

2) 해석질문: 베드로는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흠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1:1)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1)택하심 2)나그네됨 3)흠어짐” 등으로 정리할 때, 각각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3) 적용질문

3.1(먼저오심): 하나님은 변방의 작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경험했나요?

3.2(만나주심): 베드로는 “택하심, 나그네됨, 흠어짐” 등으로 표현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공동사역을 통해 가능함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1:2).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공동사역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나요?

3.3(다듬으심):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의 삶은 '택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됨, 흠어짐'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3.4(들어쓰심): 베드로는 '구원'을 “거듭남(1:3), 장차 받을 구원과 산 소망(1:4, 7), 지금 경험하는 보호와 구원, 시련과 훈련(1:5-9)” 등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나요?

4)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출애굽'을 '구원'의 전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하면 서(1:13-21), 이 모든 여정을 잘 마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부탁 -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1:13), 거룩하게 하십시오(1:14-16),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1:17-21) - 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세 가지 부탁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가장 힘든 것은 무

엇인가요?

2. 베드로전서 1:2-2:10

1) 관찰질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로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것(1:22-24)은 무엇인가요?

2) 해석질문: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를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1:25)이라 말하는데, <메시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생명을 잉태했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잉태되었나요?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나요?

3) 적용질문

3.1(먼저오심): 베드로는 “예수는 사람에게에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2:4)이라고 하면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현실이 교회와 성도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임을 확인해줍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다운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3.2(만나주심):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네 가지(택하심을 받은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설명합니다(2:9). 하나님을 만난 이후, 여러분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네 가지 모습 중에 어떤 것인가요?

3.3(다듬으심): “거룩한 민족”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고이’는 ‘같은 언어와 관습, 문화와 전통을 공유한 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치관,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완전히 새로운 부족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3.4(들어쓰심): 베드로가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보물(Segular)”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물처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4) 삶의 현장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2:5). 이 말은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세상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3. 베드로전서 2:11-25

1) 관찰질문: 베드로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2:11)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 제시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2:21-25)

2) 해석질문: 베드로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2:12) 라고 말합니다. 비록 로마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고 불편과 손해를 경험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는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권면인데요, 여기서의 ‘바른 행실’은 어떤 의미 일까요?

3) 적용질문

3.1(먼저오심):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강조(2:9-10)하면서 “이방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2:12)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것을 언제 확신하게 되었나요?

3.2(만나주심):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바른 행위를 보고(2:12), 선한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는 것(2:15)”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비록 손해보고 불편하게 되더라도 나는 선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만남을 갖게 되었나요?

3.3(다듬으심):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2:20)”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칭찬받고 성공하기보다는 고난 받는다는 것인데,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무엇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나요?

3.4(들어쓰심):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합니다(2:21-25). 여기서 ‘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그람모스’는 ‘아래에서 열심히 그대로 베끼다’는 의미로, 처음 글자를 배울 때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쓸 수 있도록 글자 모양을 점선으로 만든 교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그대로 ‘베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4)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낫설어 합니다.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 위해, 새롭게 결심해야 할 것 또는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 베드로전서 3:1-22

1) 관찰질문: 베드로는 3장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표현은 무엇일까요? (3:16-17)

2) 해석질문: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아내와 남편’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3:1, 7)라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전제하는 “이와 같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고: 2:21-25).

3) 적용질문

3.1(먼저오심): “세례”는 ‘거듭남’을 통해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기회입니다(3:21).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3:21)”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개역)”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세례 받은 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나요?

3.2(만나주심): 베드로는 ‘믿는 남편’을 향해 아내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존중하십시오”(3:7)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 남편과 아내를 상하관계가 아니라 ‘함께’ 집안을 세워가는 관계로 바라보는 것은 파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변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존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3.3(다듬으심): 베드로는 “교회 내에서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3:8),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3:9),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3:10-11),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3:12)”를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대하실까요? 각각의 경우 세 가지씩 항목을 정리해보세요.

3.4(들어쓰심): 베드로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것으로 “선한 일(3:13), 답변할 수 있는 준비(3:15), 온유함과 두려움 마음(3:16),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3:17)”을 강조합니다. 16절의 ‘온유함’은 세상과 이웃을 향한 태도이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베드로의 권면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4)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 말을 하지 않고도 행하는 아내(3:1)”를 대비하면서, 신앙이 없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어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3:2-4)”를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세요.

5. 베드로전서 4:1-5:14

1) 관찰질문: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나요? (참고: 4:1, 4, 12-14, 19)

2) 해석질문: 베드로는 ‘고난, 죄, 하나님의 뜻’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4:1-3). 그러면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같은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고: 히12:2)

3) 적용질문

3.1(먼저오심): 베드로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이상히, 낯설게’ 여기며, 결국엔 ‘비방’까지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4:4).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낯선’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3.2(만나주심): 베드로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알려 줍니다(4:7, 8, 9, 10-11). 네 가지를 한 단어씩으로 정리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네 가지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3.3(다듬으심):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것으로 권면하는 것 중 하나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4:8)입니다. 여기서 “뜨겁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크테네”는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에도 그 이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깊이, 열심으로, 끝까지, earnestly, deeply”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3.4(들어쓰심):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4:13),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4:14),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4:16),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4:19)”이라고 하면서, 성도와 교회가 고난과 모욕을 당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당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4:12), 기뻐하십시오(4:13), 복이 있습니다(4:14),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4:16)”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과 모욕을 경험하나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4) 삶의 현장에서: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면서, 베드로는 세 가지- 자기를 낮추십시오,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4:6-8) -를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겸손, 말김, 맞서 싸움’의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